

#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a Church?

사도행전 5:1-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7월 14일 설교

<sup>1</sup>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sup>2</sup>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sup>3</sup>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sup>4</sup>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sup>5</sup>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sup>6</sup>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sup>7</sup>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sup>8</sup>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sup>9</sup>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sup>10</sup>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sup>11</sup>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 아나니아 사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한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일단 간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땅이 있어 그걸 팔고 값을 교회에 바쳤는데 일부를 떼놓고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는 크게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꾸중을 듣자마자 꺼꾸러져 죽어 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내어가 묻었습니다. 세 시간 뒤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 값이 그게 단지 물었더니 그게 다라고 대답했다가 역시 꾸중을 듣고 남편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묻고 막 돌아왔다가 삽비라의 시신도 내어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사건은 간단하데 뜻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봅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찢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행 4:32-35).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어떤 물건이든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걸 팔아 교회에 바쳤고 그러면 교회는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 제대로 먹고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원시공산사회를 이룬 거지요.

그렇게 재산 바치는 일에 본이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 바치면서 몸도 함께 바쳐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바나바 이야기에 이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 일도 바나바가 한 일하고 비슷했다는 이야기지요.

## 자원해서 팔았다

오늘 이 사건은 바치는 일에 대한 겁니다. 바나바도 바쳤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바치다가 일이 잘못 돼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요즘 바치는 일은 교회생활의 일부입니다. 예배 중에도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됩니까? 말 뜻은 돈을 드린다 하는 거지만 헌금은 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우리한테 돈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를 믿었다고 재산을 다 팔아야 했던 건 아닙니다.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아 바쳤을 수도 있고 땅 많은 사람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팔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쳐야만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보면 교인들이 한 사람 집에 모여 기도회를 하

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교인이었지만 큼직한 집을 그 때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밭을 바쳤는데 집도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 바치고 들어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강제로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뺏어갑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그런 곳이 있지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집도 바치고 땅도 바쳤지만 그 정도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아닙니까? 교인 맞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재산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쳤다고 안 바친 사람 비판하지 않고 내가 안 바쳤다고 바친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계십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다. 베드로의 첫 꾸지람이 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팔고 안 팔고 네 자유가 아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원해 팔았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팔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압력을 넣는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강제로 하게 하는 건 마귀의 방법이요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의 원리에 따라 세울 수는 없습니다.

## 액수도 내 마음

첫째, 교회가 바치는 걸 강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둘째로는 땅 판 돈을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확인하는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물었을 때 삽비라가 “예, 그게 답니다” 그랬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땅 판 돈을 전액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팔고 안 팔고도 네 마음이듯, 판 다음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다 바치는 게 규칙이라면 판 다음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일부만 바친 게 잘못이 아니라면 아나니아의 잘못은 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같은 말을 두 번 써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거짓말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속인다는 말이나 거짓말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만 지금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 속인다는 말은 해당이 안 되지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호통을 보니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아나니아가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요.

거짓말의 내용은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 한 거지요. 아나니아는 한 마디 말도 못 하고 꾸중만 들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꾸중한 내용을 보니 아나니아가 돈을 바치면서 한 마디는 분명히 했습니다. 뭘겠습니까? “제가 땅 판 값을 갖고 왔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다 갖고 왔다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두 번이나 말한 겁니다. 또 “감추었다”는 말에도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안 보이게 숨겼다는 말이 아니라 훔쳤다는 말입니다. 일부만 갖고 와서 “이게 답니다” 했으니 집에 남겨둔 나머지는 결국 훔친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 믿지 않은 죄

드러난 범죄는 사도들 앞에서 한 거짓말, 곧 하나님께 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값을 일부 떼 놓을 때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가 베드로 앞에서 “이게 답니다” 하는 순간 죄를 지은 게 됩니까? 그냥 사실대로 “집에 조금 떼 놓았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베드로 앞에서 한 거짓말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겉으로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몸이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몸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손발도 그렇고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마음이 짓습니다. 베드로의 꾸중에 있습니다. 두 번 나오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입니다.

죄는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 짓습니다. 하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행위 이전에 뱀의 말이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열매를 보니 맛있어 보이고 한 그게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마음이 시키니까 손이 나가서 입이 먹은 거지요. 마음으로 죄를 지은 순간이 바로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에 들어간 순간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탄이 아나니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후의 행동을 보니까 아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도 거짓말 하지요. 대개 어떨 때 합니까? 상대방을 속일 가능성

이 있을 때 합니다. 아무리 해도 들킬 상황이라면 거짓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짹 짹 빌지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소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근본 죄악입니다. 죄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지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적어도 죄를 지은 순간, 사탄이 마음에 가득 한 그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 불신앙과 위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는 세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을 일부 떼놓는 단계입니다. 돈을 왜 떼 놓습니까? 아니, 그 전에, 돈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은혜를 받으니 바치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바칩니다. 돈 바치는 행위는 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지요. 돈으로 쌀 사고 옷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산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푼돈 약간 바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드린 뒤에도 먹고 살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일부 떼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재산을 다 바치려니 겁이 좀 납니다. 만약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일이 생길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거다” 하고 믿음으로 바치겠지만 나는 안 믿으니깐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 떼놓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그게 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거짓말을 왜 합니까? 여기서 또 다른 죄가 드러납니다. 위선죄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인 척 사도들과 교인들을 속인 겁니다.

위선죄가 없었다면 사탄이 땅을 판 뒤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판 다음 값을 다 바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꾸중입니다. 값을 다 바쳤더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에다 사람들을 속인 위선죄까지 있다고 본다면 사탄은 땅을 판 다음이 아니라 땅을 팔기 전에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땅을 팔기는 좋은 뜻으로 팔았는데 돈을 보는 순간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땅을 판 행위가 그 전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실행하는 첫 단계였다는 말입니다.

## 거짓 꾸민 믿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원문을 보면 “소유를 팔아 감추었다” 해서 판 것과 감춘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장난을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보통 이 말을 “땅을 팔든 안 팔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판 다음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풀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판 건 내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한 일인데 판 다음 돈을 감춘 건 내 뜻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구절도 꾸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꾸중으로 봐야 말이 됩니다. 그냥 두어도 될 땅을 왜 팔았느냐 하는 꾸중입니다. 땅을 판 게 이미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된 동기로 땅을 판 잘못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왜 팔았습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걸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없는 믿음 있는 척한 것도 죄지만 그 죄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죄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으니 짹 무시하고 그저 사람만 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무상통하고 집이나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친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행 4:33-34).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결과 집도 팔고 땅도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들으니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내 앞날을 위해 쌓아두었던 것, 내 자식들 위해 비축해 놓았던 것, 다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며 삽니다. 게다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 후에 더 좋은 것이 오니 그걸 바라는 소망 가운데 더욱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팔았

습니다.

은혜지요. 기쁨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고후 9:7). 하나님도 받는 입장에서 기분 따지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즐겨 내는 돈만이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런 헌금만이 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다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믿음에 서는 교회

오늘 본문은 바치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바치는 일은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재산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이기에 재산뿐 아니라 몸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으니, 아니 정말로 팔았으니 보통은 넘는다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쇼를 했습니다. 나도 믿음이 훌륭하다는 쇼입니다. 나도 믿음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갖고 거룩한 열심이니 뭐니 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바치다 보면 믿음도 좋아진다,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도 늘어놓습니다. 이건 열심히 아니라 탐욕입니다. 거룩한 게 아니라 추악한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것을 내 추악한 탐욕으로 더럽히는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야 할 거룩한 헌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도 속여서 인정받는 그런 수단으로 더럽힌 잘못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알아야 이들이 받은 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현장에서 즉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이들 말고도 하나님께 거짓말 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세 시간 간격으로 같이 죽이신 이유는 이들이 지은 죄가 참으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막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입술로도 나타나고 돈을 드리는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느 하나 믿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 감히 낄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썩게 만듭니다. 교회가 밀가루라면 누룩을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지요 (고전 5:6).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나한테 거짓말하면 죽는다, 다 안 드리고 떼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겁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 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점점 죄가 스며들겠지만 시작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 부부를 통해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수 7:1-26).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어긴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처음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기고 제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레 10:1-11).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귀한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제사장도 나중에 많이 나오지만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 제도가 막 시작된 때였기 하나님이 그만큼 엄정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아간의 죽음이나 나답과 아비후 형제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형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자 사람들이 즉각 시체를 내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묻었을까 싶지만 거기 있던 모두가 이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는 진 안에 두면 안 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즉각 갖고 나가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 내가 받을 교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이었는데 잠시 시험에 든 건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배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사람도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위선의 죄를 멀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는 것임을 배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은 드렸습니다. 상당한 액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벌을 받았습니다. 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게 드리는 겁니다.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마음과 함께 돈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의지와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곳입니다.

셋째, 두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베드로가 꾸중하는 동안 “하나님!” 하고 엎드렸더라면 목숨은 건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앞에 돈을 내놓을 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돈을 내놓을 때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잘못된 동기로 땅을 파는 잘못부터 막았더라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늘 불신앙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눅 22:32; 히 3:12).

사람이 죽었으니 큰 비극입니다. 부부가 함께 죽었으니 더욱 비참하지요. 소식을 듣는 모두가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사람을 즉사시키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 비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